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778-2788, 201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77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영태[1*]
[1]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복지과

Influence of Employment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Career Decision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Young-Tae Kim[1*]
[1]**Dept. of Multicultural Welfar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시에 소재한 대학생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결과에 대하여 첫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은 성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은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진로탐색과 진로선택에 있어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주며,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지도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stress for getting a job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ffect career decision efficacy of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survey was conducted on 447 college students in the city of I. The results were first, college students' stress for getting a job,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didn't have difference by the distinction of sex. Second, some significant difference was present on college students' stress for getting a job,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by grade levels. Third, some meaningful correlation was shown on college students' stress for getting a job,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Fourth, college students' stress for getting a job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career decision efficacy. As seen in such results, in the course of career search and choice, stress for getting a job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hown as positive variables. When college students are making a decision on their career, their career decision efficacy can be an important factor of career counseling.

Key Words : Employment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Career Decision Efficac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개인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생계의 유지수단 이외에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Young-Tae Kim(Wonkwang Health Science Univ.)
Tel: +82-10-2877-7536 email: kytkyt@wu.ac.kr
Received December 26, 2013 Revised January 15, 2014 Accepted May 8, 2014

적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업 즉,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1].

청년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이상과 목표 간의 갈등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인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런 적응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자질과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과 사회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게 된다. 이 시기 동안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며,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의 성취와 함께 직업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2].

그러나, 오늘날 대학생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취업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며[3],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심각하고[1], 대학생들이 정체감 확립과 사회적, 심리적인 독립을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게 겪게 되는 취업스트레스는 그들이 당면한 매우 중요하고도 밀접한 관계로, 이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4].

또한, 대학생들은 사회경제학적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잘 적응하며 사회인으로서도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는 심리적안녕감이 있다[5].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6]. 심리적 안녕감은 인생의 다른 시기보다 청소년기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심리적 안녕감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긍정적 발달의 주요 지표가 되고, 다른 긍정적인 결과에 공헌하기 때문이다[7].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는 현 우리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며, 취업은 대학생들에게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다[4]. 이는, 한국 사회의 경기침체, 불확실성 속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8]. 이러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진로결정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 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9].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동력,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성공에 필요한 지적·정서적·신체적 근원 등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활동에 연관시킨 것이 진로결정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다[10].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 훈련 등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스트레스를 덜 심각하게 지각하고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커지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취업스트레스의 요인이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자신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인 진로결정효능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을 진로결정과 연결한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진로와 관련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로결정효능감과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다각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준비 활동과 바람직한 진로에 대한 적응 및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지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며,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진로지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은 변인별(성별, 학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I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생 447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개설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조사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460명 중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13부를 제외한 447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nent

Spec.		N	Percentage
Gender	Female	168	37.6
	Male	279	62.4
Grade	1st	93	20.8
	2nd	105	23.5
	3rd	118	26.4
	4th	131	29.3
Total		447	100

2.2 연구도구

2.2.1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12]의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Dedical Index:CMI)'을 토대로 [1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사용한 것을 [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는 .76~.78이었다.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적음을 나타낸다. 설문지 문항 수는 22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는 성격요인 9문항, 가족요인 5문항, 학업요인 4문항, 학교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2]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 Factors	Question Number	N	Cronbach's α
Personality	1, 2, 3, 4, 5, 6, 7, 8, 9	9	.878
Family Environmental	10, 11, 12, 13, 14	5	.830
School Environmental	15, 16, 17, 18	4	.768
Studies	19, 20, 21, 22	4	.780
Total		22	.908

2.2.2 심리적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6]이 개발한 PWBS(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척도를 [14]가 번안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6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다른 설문지의 형태가 서로 다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응답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 문항수는 46문항이며, 자아수용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력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적 문항 23문항과 부적 문항(역채점 문항)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3]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 Factors	Question Number	N	Cronbach's α
Self Acceptance	3, 8, 12*, 19, 24, 26*, 39, 42	8	.717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4*, 9*, 13, 20*, 27*, 38, 46*	7	.758
Autonomy	5, 10*, 15, 21*, 29, 33*, 36*, 43	8	.662
Environmental Mastery	1, 6*, 14, 16*, 25, 30, 40*, 44	8	.607
Purpose in Life	7*, 11*, 18*, 23*, 28, 32, 35	7	.724
Personal Growth	2*, 17, 22*, 31, 34*, 37, 41*, 45*	8	.726
Total		46	.908

* : Negative question

2.2.3 진로결정효능감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16]가 개발한 CDMS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인 CDMSES-SF[17]를 [1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는 .68~.92이었다. 설문지는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문항 수는 25문항이며, 하위 영역으로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 당 5문항씩 구성되었다.

[Table 4]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 Factors	Question Number	N	Cronbach's α
Job Information	1, 2, 3, 4, 5	5	.745
Select the target	6, 7, 8, 9, 10	5	.761
Future plans	11, 12, 13, 14, 15	5	.712
Problem Resolution	16, 17, 18, 19, 20	5	.708
Self-evaluation	21, 22, 23, 24, 25	5	.808
Total		25	.883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검증을 하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 요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배경변인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3.3.1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취업스트레스에서 여학생과 남학생들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학교환경(F=6.060, p<.01)과 학업(F=4.137, p<.05)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성격과 가족환경 및 학업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심리적안녕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통제력(F=10.008, p<.01)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효능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계획(F=7.234, p<.01)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according of gender

Spec.		Gender	N	M	SD	F	p
Employment Stress	Personality	Female	168	2.16	.74	.643	.423
		Male	279	2.22	.81		
		All	447	2.20	.78		
	Family Environmental	Female	168	2.25	.84	1.972	.161
		Male	279	2.12	.94		
		All	447	2.17	.90		
	School Environmental	Female	168	2.94	.83	6.060	.014
		Male	279	2.73	.87		
		All	447	2.81	.86		
	Studies	Female	168	2.58	.88	4.137	.043
		Male	279	2.41	.86		
		All	447	2.47	.87		
	Total	Female	168	2.40	.60	1.250	.264
		Male	279	2.32	.68		
		All	447	2.35	.66		
Psychological Well-being	Self Acceptance	Female	168	3.09	.59	.346	.556
		Male	279	3.12	.56		
		All	447	3.11	.57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Female	168	3.62	.74	.000	.989
		Male	279	3.62	.63		
		All	447	3.62	.67		
	Autonomy	Female	168	3.28	.55	1.036	.309
		Male	279	3.33	.54		
		All	447	3.31	.54		
	Environmental Mastery	Female	168	3.05	.53	10.008	.002
		Male	279	3.21	.47		
		All	447	3.15	.50		
	Purpose in Life	Female	168	3.41	.72	.323	.570
		Male	279	3.37	.61		
		All	447	3.39	.66		
	Personal Growth	Female	168	3.51	.70	.722	.396
		Male	279	3.46	.59		
		All	447	3.48	.63		
	Total	Female	168	3.32	.50	.379	.538
		Male	279	3.35	.42		
		All	447	3.34	.45		
Career Decision Efficacy	Job Information	Female	168	3.28	.71	.877	.350
		Male	279	3.21	.79		
		All	447	3.24	.76		
	Select the target	Female	168	3.53	.68	3.020	.083
		Male	279	3.41	.74		
		All	447	3.45	.72		
	Future plans	Female	168	3.05	.65	7.234	.007
		Male	279	3.24	.71		
		All	447	3.17	.69		
	Problem Resolution	Female	168	3.25	.69	2.631	.105
		Male	279	3.14	.72		
		All	447	3.18	.71		
	Self-evaluation	Female	168	3.45	.71	.486	.486
		Male	279	3.40	.75		
		All	447	3.42	.74		
	Total	Female	168	3.31	.48	.461	.497
		Male	279	3.28	.55		
		All	447	3.29	.52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취업스트레스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환경요인과 학업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성격과 가족환경의 요인보다는 학교환경과 학업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에서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진로결정효능감에서 남학생들이 미래계획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여 진다.

3.3.2 학년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이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취업스트레스에서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7.259, p<.001).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격(F=35.811, p<.001)과 가족환경(F=29.740, p<.001), 학업(F=8.246, p<.01)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더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환경에 대한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심리적안녕감에서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F=7.352, p<.01). 또한, 개인적성장(p<.01)과 자아수용, 환경통제력, 삶의목적(p<.05)에서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긍정적대인관계와 자율성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진로결정효능감에서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높게 나타났다(F=4.981, p<.05).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업정보(F=10.481, p<.01)과 자기평가(F=11.625, p<.01)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취업스트레스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대학 졸업 후의 취업 관련 문제로 인하여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심리적안녕감에서 고학년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활로 인하여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며,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고, 삶의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진로결정효능감에서는 고학년이 취업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탐색과 자신에 대한 능력 등을 정확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Table 6]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according of grade

Spec.		Grade	N	M	SD	F	p
Employment Stress	Personality	Low	198	1.95	.70	35.811	.000
		High	249	2.39	.79		
		All	447	2.20	.78		
	Family Environmental	Low	198	1.91	.90	29.740	.000
		High	249	2.37	.86		
		All	447	2.17	.90		
	School Environmental	Low	198	2.82	.88	.114	.736
		High	249	2.79	.85		
		All	447	2.81	.86		
	Studies	Low	198	2.34	.83	8.246	.004
		High	249	2.58	.89		
		All	447	2.47	.87		
	Total	Low	198	2.17	.61	27.259	.000
		High	249	2.49	.65		
		All	447	2.35	.66		
Psychological Well-being	Self Acceptance	Low	198	3.05	.54	4.081	.044
		High	249	3.16	.59		
		All	447	3.11	.57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Low	198	3.55	.68	3.583	.059
		High	249	3.68	.66		
		All	447	3.62	.67		
	Autonomy	Low	198	3.29	.56	.664	.416
		High	249	3.33	.53		
		All	447	3.31	.54		
	Environmental Mastery	Low	198	3.08	.49	6.732	.010
		High	249	3.20	.50		
		All	447	3.15	.50		
	Purpose in Life	Low	198	3.31	.58	5.038	.025
		High	249	3.45	.70		
		All	447	3.39	.66		
	Personal Growth	Low	198	3.39	.60	7.394	.007
		High	249	3.55	.65		
		All	447	3.48	.63		
	Total	Low	198	3.27	.42	7.352	.007
		High	249	3.39	.47		
		All	447	3.34	.45		
Career Decision Efficacy	Job Information	Low	198	3.11	.77	10.481	.001
		High	249	3.34	.74		
		All	447	3.24	.76		
	Select the target	Low	198	3.46	.77	0.32	.858
		High	249	3.45	.68		
		All	447	3.45	.72		
	Future plans	Low	198	3.15	.67	.330	.566
		High	249	3.18	.70		
		All	447	3.17	.69		
	Problem Resolution	Low	198	3.15	.75	.835	.361
		High	249	3.21	.68		
		All	447	3.18	.71		
	Self-evaluation	Low	198	3.28	.78	11.625	.001
		High	249	3.52	.69		
		All	447	3.42	.74		
	Total	Low	198	3.23	.55	4.981	.026
		High	249	3.34	.50		
		All	447	3.29	.52		

3.2 상관관계 검증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과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심리적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의 목표선택과 미래계획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특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심리적안녕감의 자아수용, 긍정적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목적, 개인적 성장의 모든 요인에 대하여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안녕감과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심리적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삶의 목적 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1 취업스트레스가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8과 같다. 심리적안녕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범위가 .553~.802, 분산팽창인자가 1.248~1.80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첫째로 자아수용 요인은 학업(p<.001), 가족환경과 성격(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은 자아수용 요인에 대하여 20.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9.149, p<.001).

둘째, 긍정적대인관계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과 학교환경(p<.001), 가족환경(p<.05)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긍정적대인관계 요인에 대하여 15.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806, p<.001).

셋째, 자율성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p<.001), 가족환경과 성격(p<.05)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자율성 요인에 대하여 14.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0.031, p<.0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spec.	Employment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Career Decision Efficac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②	.596(**)													
③	.338(**)	.340(**)												
④	.466(**)	.539(**)	.406(**)											
⑤	-.256(**)	-.183(**)	-.240(**)	-.437(**)										
⑥	-.246(**)	-.292(**)	-.312(**)	-.344(**)	.509(**)									
⑦	-.233(**)	-.154(**)	-.194(**)	-.371(**)	.538(**)	.417(**)								
⑧	-.295(**)	-.228(**)	-.261(**)	-.416(**)	.634(**)	.451(**)	.385(**)							
⑨	-.209(**)	-.153(**)	-.193(**)	-.458(**)	.576(**)	.485(**)	.451(**)	.597(**)						
⑩	-.189(**)	-.181(**)	-.225(**)	-.421(**)	.487(**)	.571(**)	.361(**)	.411(**)	.532(**)					
⑪	.018	.045	-.065	-.073	.317(**)	.134(**)	.219(**)	.318(**)	.371(**)	.225(**)				
⑫	-.194(**)	-.207(**)	-.174(**)	-.273(**)	.405(**)	.291(**)	.278(**)	.315(**)	.429(**)	.315(**)	.543(**)			
⑬	-.168(**)	-.104(*)	-.174(**)	-.291(**)	.328(**)	.176(**)	.293(**)	.336(**)	.385(**)	.224(**)	.423(**)	.519(**)		
⑭	-.072	-.047	.053	-.093(*)	.276(**)	.197(**)	.255(**)	.154(**)	.233(**)	.204(**)	.145(**)	.277(**)	.301(**)	
⑮	-.080	-.073	-.192(**)	-.224(**)	.295(**)	.329(**)	.346(**)	.297(**)	.499(**)	.305(**)	.413(**)	.575(**)	.530(**)	.354(**)

* p<.05 ** p<.01 (N=447)

①Personality ②Family Environmental ③School Environmental ④Studies ⑤Self Acceptance
⑥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⑦Autonomy ⑧Environmental Mastery ⑨Purpose in Life ⑩Personal Growth
⑪Job Information ⑫Select the target ⑬Future plans ⑭Problem Resolution ⑮Self-evaluation

[Table 8] Factors in employment stress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Self Acceptance	(constant)	3.942	.097		40.644	.000
	Studies	-.282	.035	-.429	-8.072	.000
	Family Environmental	.090	.036	.142	2.501	.013
	Personality	-.084	.040	-.115	-2.118	.035
	Adj R^2=.202 F=29.149 p<.001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constant)	4.627	.113		40.799	.000
	Studies	-.158	.042	-.203	-3.783	.000
	School Environmental	-.148	.038	-.189	-3.927	.000
	Family Environmental	-.088	.039	-.118	-2.255	.025
	Adj R^2=.158 F=28.806 p<.001					
Autonomy	(constant)	3.986	.096		41.651	.000
	Studies	-.228	.034	-.364	-6.629	.000
	Family Environmental	.082	.036	.135	2.297	.022
	Personality	-.089	.039	-.128	-2.271	.024
	Adj R^2=.146 F=20.031 p<.001					
Environmental Mastery	(constant)	3.922	.086		45.438	.000
	Studies	-.203	.031	-.353	-6.589	.000
	Personality	-.094	.035	-.147	-2.684	.008
	School Environmental	-.056	.028	-.096	-2.023	.044
	Adj R^2=.189 F=27.022 p<.001					
Purpose in Life	(constant)	4.248	.111		38.411	.000
	Studies	-.385	.040	-.509	-9.674	.000
	Family Environmental	.122	.041	.167	2.968	.003
	Adj R^2=.218 F=32.063 p<.001					
Personal Growth	(constant)	4.312	.109		39.447	.000
	Studies	-.314	.039	-.431	-7.983	.000
	Adj R^2=.178 F=25.167 p<.001					
Total	(constant)	4.163	.072		57.945	.000
	Studies	-.261	.026	-.502	-10.084	.000
	School Environmental	-.058	.023	-.110	-2.498	.013
	Family Environmental	.055	.027	.109	2.056	.040
	Personality	-.060	.029	-.104	-2.049	.041
	Adj R^2=.301 F=48.976 p<.001					

넷째, 환경통제력 요인은 학업(p<.001), 성격(p<.01), 학교환경(p<.05)이었으며, 이 요인은 환경통제력 요인에 대하여 18.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022, p<.001).

다섯째, 삶의목적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p<.001), 가족환경(p<.01)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삶의목적 요인에 대하여 21.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063, p<.001).

여섯째, 개인적성장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p<.001)이었으며, 이 요인은 개인적성장 요인에 대하여 17.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167, p<.001).

일곱째, 심리적안녕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업(p<.001), 학교환경(p.<01), 가족환경과 성격(p<.05)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심리적안녕감 전체 요인에 대하여 30.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2.692, p<.001).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학업, 학교환경, 가족환경, 성격은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은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학업은 심리적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9와 같다. 진로결정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첫째로 직업정보 요인은 학업(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은 직업정보 요인에 대하여 1.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106, p<.001).

둘째, 목표선택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p<.01)이었으며, 이 요인은 목표선택 요인에 대하여 7.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242, p<.001).

셋째, 미래계획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p<.001), 가족환경(p<.05)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미래계획 요인에 대하여 9.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038, p<.001).

넷째, 문제해결 요인은 학업과 학교환경(p<.05)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문제해결 요인에 대하여 1.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411, p<.001).

다섯째, 자기평가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p<.001), 학교환경(p<.01)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자기평가 요인에 대하여 6.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063, p<.001).

여섯째, 진로결정효능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업(p<.001)이었으며, 이 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 전체 요인에 대하여 6.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841, p<.001).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학업, 학교환경, 가족환경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학업은 진로결정효능감 모든 하위요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Factors in employment stress affecting career decision 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Job Information	(constant)	3.395	.144		23.616	.000
	Studies	-.106	.052	-.122	-2.055	.040
	Adj R^2=.010 F=2.106 p<.001					
Select the target	(constant)	4.197	.132		31.808	.000
	Studies	-.165	.047	-.199	-3.476	.001
	Adj R^2=.077 F=10.242 p<.001					
Future plans	(constant)	3.857	.125		30.784	.000
	Studies	.232	.045	.293	5.157	.000
	Family Environmental	.098	.047	.128	2.113	.035
	Adj R^2=.090 F=12.038 p<.001					
Problem Resolution	(constant)	3.255	.135		24.195	.000
	Studies	-.097	.048	-.119	-2.014	.045
	School Environmental	.098	.044	.118	2.251	.025
	Adj R^2=.012 F=2.411 p<.001					
Self-evaluation	(constant)	4.033	.136		29.570	.000
	Studies	-.188	.049	-.221	-3.834	.000
	School Environmental	-.118	.044	-.137	-2.667	.008
	Adj R^2=.060 F=8.087 p<.001					
Total	(constant)	3.747	.097		38.760	.000
	Studies	-.158	.035	-.261	-4.539	.000
	Adj R^2=.066 F=8.841 p<.001					

3.3.3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들의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10과 같다. 진로결정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범위가 .599~.686, 분산팽창인자가 1.458~1.66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첫째로 직업정보 요인은 삶의목적(p<.001), 자아수용(p<.01), 긍정적대인관계(p<.0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은 직업정보 요인에 대하여 15.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861, p<.001).

둘째, 목표선택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삶의목적과 자아수용(p<.001)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목표선택 요인에 대하여 21.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3.074, p<.001).

[Table 10] Factor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ffecting career decision 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Job Information	(constant)	1.678	.216		7.764	.000
	Purpose in Life	.366	.064	.317	5.731	.000
	Self Acceptance	.260	.075	.195	3.473	.001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134	.059	-.119	-2.267	.024
	Adj R^2=.158 F=28.861 p<.001					
Select the target	(constant)	1.436	.184		7.819	.000
	Purpose in Life	.322	.056	.293	5.726	.000
	Self Acceptance	.298	.065	.236	4.597	.000
	Adj R^2=.218 F=63.074 p<.001					
Future plans	(constant)	1.151	.224		5.136	.000
	Purpose in Life	.255	.059	.243	4.317	.000
	Autonomy	.163	.062	.129	2.632	.009
	Environmental Mastery	.195	.075	.141	2.599	.010
	Adj R^2=.173 F=32.133 p<.001					
Problem Resolution	(constant)	1.778	.215		8.254	.000
	Self Acceptance	.243	.067	.195	3.638	.000
	Autonomy	.196	.070	.150	2.788	.006
	Adj R^2=.088 F=22.462 p<.001					
Self-evaluation	(constant)	1.095	.203		5.408	.000
	Purpose in Life	.484	.051	.430	9.458	.000
	Autonomy	.206	.062	.152	3.336	.001
	Adj R^2=.264 F=80.949 p<.001					
Total	(constant)	1.403	.142		9.850	.000
	Purpose in Life	.305	.039	.381	7.793	.000
	Self Acceptance	.147	.048	.159	3.076	.002
	Autonomy	.121	.046	.125	2.634	.009
	Adj R^2=.316 F=69.791 p<.001					

셋째, 미래계획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삶의목적(p<.001), 자율성(p<.01), 환경통제력(p<.05)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미래계획 요인에 대하여 17.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133, p<.001).

넷째, 문제해결 요인은 자아수용(p<.001), 자율성(p<.01)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문제해결 요인에 대하여 8.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462, p<.001).

다섯째, 자기평가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삶의목적(p<.001), 자율성(p<.01)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자기평가 요인에 대하여 26.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0.949, p<.001).

여섯째, 진로결정효능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삶의목적(p<.001), 자아수용과 자율성(p<.01)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진로결정효능감 전체 요인에 대하여 31.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9.791, p<.001). 따라서,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삶의목적,

자아수용, 자율성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삶의목적은 진로결정효능감 모든 하위 요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삶의 목적에 대하여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은 배경변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진로결정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프로그램과 취업역량강화 활동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학교환경과 학업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 환경통제력과 진로결정효능감의 미래계획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학교환경과 학업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남학생들은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며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여짐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년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성격과 가족환경, 학업에서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취업스트레스를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 개인적성장, 자아수용, 환경통제력, 삶의목적에서도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 직업정보, 자기평가에서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취업 관련 문제로 인하여 긴장감 또는 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며, 취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탐색과 자신에 대한 능력 등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짐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또는 부적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심리적안녕감과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심리적안녕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효능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를 있는 그대도 수용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학생은 진로결정을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즉, '학업', '학교환경', '가족환경', '성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 '자아수용', '긍정적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목적', '개인적성장' 모두 취업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리적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즉, '학업', '학교환경', '가족환경'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모두 취업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로결정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 즉, '삶의목적', '자아수용', '자율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모두 심리적안녕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은 성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19]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심리적안녕감에 성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20,21] 결과와 취업스트레스에서 성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1,13,22]를 지지해주며, 이는, 대학생이면 진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통적인 사실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취업의 부담감 등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에 성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취업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진로결정효능감은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레스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높다는 연구[1,13,22] 결과를 지지해주며,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19]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10]를 지지해주며, 이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관심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탐색할 수 있는 진로결정 활동을 적극적이며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 '자아수용', '긍정적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목적', '개인적성장' 모두 취업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모두 심리적안녕감과 취업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진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1]. 이에, 대학에서 취업과 관련한 진로지도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가 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 가며, 심리적안녕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형성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I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정한 곳에 편중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무선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표집인원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도구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소 많은 질문지의 문항수로 인해 얼마나 성의 있게 답변했느냐를 고려할 때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질문지에 의한 통계에만 의존하였기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Bae, J. Y.,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and Job-seeking Efficacy,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2] Kim, T. R.,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Pakyoungsa Press, 2005.

[3] Park, M. J., Kim, J, H., & Jung, M. S.,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1), pp. 417~435, 2009.

[4] Lee, M. S.,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Scal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5] Kwak, Y. Y.,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College Students' Financial Independenc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6]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pp. 1069～1081, 1989.
[7] Shin, J. Y., Lee Y A., & Lee, K. H., The Effects of Life Meaning and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pp. 1035～1057, 2005.
[8] Lee, S. H., & Seo, Y. R., A Study of Sex Differen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Vocational-identit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 pp. 37～53, 2012.
[9]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From field experiments to program implementation; Assessing the porential outcomes of an experimental invention program for unemployed pers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19, pp. 543～562, 1991.
[10] Lee, Y. K., & Kang, K. H., The Analysis About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Undergraduates - In Focus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Colleg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2), pp. 60～67, 2011.
[11] Kim, H. A., The effect of the feedback type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12] Shepherd, M., Cooper B., Brown, A. C., & Kalton, G. W.,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13] Hwang, S. W., The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14] Kim, M. S., Kim, H, W., & Cha, K, H.,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pp. 19～39, 2000
[15] Kim, T. W.,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 Autonom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rom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16] Taylor, K. M., & Betz, N.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pp. 63～81, 1983.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3)90006-4
[17]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pp. 47～57. 1996.
[18] Lee, K. H., & Lee, H. J.,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pp. 127～136, 2000.
[19] Song, J. H., Difference in Employment-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mong University Student Based on Their Major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Master's Thesis, 2008.
[20] Ha, Y. J.,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ing on males and females in their 20s and 30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21] Lee, M. J., The Relationship among Body Esteem,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22] Yun, S. W., & Kim, K. S.,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Locus of Control on Stress towards 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2), pp. 606～614,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2.606

김 영 태(Young-Ta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복지과 조교수

<관심분야>
교육심리, 교육과정, 다문화교육